

<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새벽, 주 말씀>

* 새벽 설교를 할 때는

항상 <주일말씀 주제>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,
그다음에 <잠언>을 전해 줘야 된다.

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

<주제>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‘그에 해당되게’ 깨닫는다.

* 설교자는 <잠언>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,

잠언을 한 절,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.

1. <하나님의 말씀>을 들으면, 한 주 동안 ‘그 주에 해당되는 뜻’
을 꼭 이루고 살아야 된다.

2. <말씀의 심지가 굳은 자>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좋아하시고
기뻐하신다.

3. <하나님과 마음이 일체 된 자>여야, ‘좌우’로 흔들리지 않는다.

4. 하나님은 <흠 없이 행하는 자>, <온전한 자>와 늘 함께하시고,
마음을 놓으시고 축복도 해 주신다.

5.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<자기>가 흔들거리면, 다 뺏겨 버린다.
<좌우>로 치우치고 흔들리면, ‘받은 것’을 다 쏟아 버리게 된다.

다.

6. <하나님이 보낸 자>를 만나서 ‘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’ 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닫고, 전심으로 행하여라.
7. 생활 속에서 매일 <하나님>과 <성령님>을 부르고, <주>를 부르며 이야기하며 행해라. 그래야 ‘같이 사는 삶’ 이 된다.
8. <하나님>과 <성령님>과 <주의 영>이 옆에 와 계셔도, ‘대화’를 안 하면 사라지신다.
9. 어려움이 있을 때, <하나님>이 ‘자기 속’ 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말고, <자기>도 ‘하나님의 속’ 을 시원하게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, 항상 화끈하게 행해 드리다.